

(4) 타마츠시마진자(신사) (제 7 권 1222 번)

【시비 내용】

타마츠시마 미레도모 아카즈 이카니시테 츠츠미모치유칸 미누히토노타메

【해설】

이 시는 만요슈(만엽집)의 7 권에 실린 시(1222 번 시)입니다. 진키원년(724)에 쇼무텐노(천황)가 키노쿠니(와카야마현) 타마츠시마를 방문했을 때 읊은 시라고 추정됩니다. 시비에는 (작자 미상)이라고 써 있습니다만, 그 후에 연구에 의해 “후지와라 경”의 작품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. 후지와라 경은 후지와라 후히토의 자손(4 형제) 중, 후지와라 후사사키 혹은 후지와라 마로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나라 현에서 힘들게 찾아온 와카야마에서 후지와라 경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진 신선하고 광대한 바다 경치를 접합니다. 타마츠시마의 너무 아름다움에 감동한 후지와라 경은 “타마츠시마의 이 아름다운 경치는 아무리 봐도 질리지않습니다.아직 이 경치를 못 본 사람을 위해 통채로 포장해서 도시에 가져가고싶을 정도다” 라는 취지의 시를 읊었습니다. 절경을 앞에 한 놀라움과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고 바라는 순수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